

귀국보고서

파견대학	일리노이공과대학
파견기간	19.08.14. ~ 20.02.29.
프로그램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일리노이 공과대학 보험 (1000불), F-1비자 발급(160불)받았고 대한항공에서 인천 시카고 왕복으로 예매했습니다(190만원).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 네이버 검색해보면 교환학생 필요물품 리스트대로 준비했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언어: 영어, 문화: 미국문화, 물가: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외식 물가는 많이 비싸고 식료품가격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 미국이기 때문에

나-2. 공항 - 학교

➔ 학교에서 준비해준 셔틀을 타고 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 수강신청은 수업시작 전주에 담당자 두 분과 상담을 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수업내용은 제가 IT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 기숙사는 대부분 MSV를 사용하고 저도 학기 중엔 MSV를 이용했습니다. (한 학기에 약 300만원) 하지만 급식 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한 학기 230달러 기준 300만원) 차라리 MSV말고 키친이 있는 카먼 홀이나 곤잘레스홀로 선택하여 기숙사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밀 플랜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나-5. 교내 · 외 활동

→ 따로 활동하지 않고 여행 다녀왔습니다.

나-6. 꿀 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근처 식당>

→ 근처 차이나타운 seven treasures라는 식당에 shrimp wonton noodle을 주문하고 핫 소스를 넣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차이나타운 MCCB 마라샹궈도 맛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베트남음식점이 있는데 쌀국수도 맛있습니다. 시카고피자는 유명한 곳이 루 말나티스, 지오다노, 우노, 지노스이스트 4곳이 있는데 지노스이스트는 한국피자와 비슷한 맛이고 루 말나티스가 미국스러운 맛있는 맛입니다 우노도 맛있고 지오다노는 맛 없습니다. 루 말나티스=지노스 이스트=우노>>>지오다노

프로 삼겹살이라는 삼겹살집이 있는데 학교에서 꽤 먼 곳에 있습니다. 맛은 괜찮지만 거리가 멀어요. 조선옥이라는 식당은 차돌박이 구이가 유명한데 2인분에 30불정도로 괜찮게 먹을 수 있지만 웨이팅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낸도스치킨-미국에 여러 군데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맛 있습니다.

<급식>

밀 플랜 선택 시 230밀과 150밀을 선택할 수 있는데 150밀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질리기 쉽습니다.

<교통>

전철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만 타지 않으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 fall break에 뉴욕 여행을 했고 휴일 이용해서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 워싱턴DC와 서부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국립공원)여행했습니다. 미국을 벗어날 때는 항상 보험 여부와 비자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미국은 한국처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